

과테말라, 베르셔 후보 대통령 당선

중동·중남미팀

□ 베르셔 후보, 결선투표까지 가는 접전 끝에 당선

- 2003년 12월 28일 실시된 과테말라 대선 결선투표에서 중도우파당 (GNA) 후보인 오스카 베르셔(Oscar Berger)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 지난 11월 9일, 11명의 후보가 치열한 접전을 벌인 과테말라 대선에서 베르셔 후보가 총 유효득표의 36%를 기록하여 1위를 차지하였으나, 과반수 득표에 크게 못 미쳐 의회 결선투표를 시행해야 했음.
- 백인 변호사 출신이며 유능한 사업가이기도 한 베르셔는 지난 1990-99년까지 수도 과테말라시터 시장을 2번이나 역임한 바 있음
- 이번 선거에서 베르셔 후보는 외국인투자 유치, 미국과 멕시코와 관계 개선, 부패 척결, 치안 유지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어 엘리트, 중상층 등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전체 국민의 30%를 차지하는 원주민으로부터는 다소 낮은 득표를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마야 인디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출마하여 1차 투표에서 2위를 차지했던 민족희망연합(UNE)의 콜롬(Colom) 후보는 2차 투표에서도 45%를 얻는데 그쳐, 1999년 대선에 이어 고배를 마셔야 했고,

- 1982년 군부쿠데타 주도자이며 정권 실세인 現국회의장 리오스 몬트(Rios Montt) 장군은 1차 대선에서 3위에 그치는 저조한 성적을 거두었음.
- ▶ 리오스 몬트는 과거 군정 책임자의 대선 출마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대선 출마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現포르티요(Portillo)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원과 이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로 대선 출마가 가능해졌음. 그러나 이번 선거 패배와 의원임기 종료로 인권 유린, 스페인 대사관 방화 및 신부 살해 혐의 등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향후 전정권의 부패처리와 안정적인 개혁정책 추진 기대

- 향후 베르셔 신정부에게는 마야 원주민과의 관계 설정, 리오스 몬트를 둘러싼 군부 세력 존재, 포르티요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 경기 침체 등 많은 해결과제가 남아 있음.
- 그러나 이전 정부와 달리 인권운동가인 리고베르타 멘추(1992년 노벨평화상 수상)를 비롯한 원주민 계층이 선거 이후 新정부와 대화 의지를 표명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제상황도 개선되고 있어, 안정적인 개혁정치 추진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
- ▶ 지난 1999년 포르티요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리고베르타 멘추는 "리오스 몬트의 후계자인 포르티요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평화협정은 의미가 없게 되었으며 과테말라는 다시 과거의 독재시절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혹평한 바 있음.

전문연구원 최성규(☎3779-6665)
E-Mail : ppio93@koreaexim.go.kr